



신영철이 만난 사람, 산

숲이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동면에서 깎 나무들과 봄의 산이 품은 온갖 생명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 산자락에서 시작한 봄은 그렇게 시나브로 산정까지 번졌다. 초록물감을 풀어 놓은 연둣빛 신록 사이로 버짐처럼 하얗게 번진 산벚꽃이 그렇고, 연분홍빛 진달래 역시 그렇다. 구미 금오산, 현풍 비슬산, 보은 속리산과 구병산도 꽃 잔치로 난리가 났다. 상복 터진 울산MBC <사람, 산>이 또 공로상을 받은 것을 축하라도 해 주듯.

글 | 신영철 편집주간 사진 | 정종원 기자

꽃 잔치 속을 걷다 >> 대구지킴이 차진철

이번 달 MBC <사람, 산>은 들머리에 조성해 놓은 튼튼꽃밭이 인상적인 구미 금오산을 찾았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상록씨와 황승대씨가 길라잡이로 나왔고, 초대손님으로는 고산거벽 등반가 이명희씨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마운틴플러스'를 운영하는 오경자 센터장을 비롯해 임지량씨, 박상진씨, 정동호씨가 대원으로 나섰다. 출연진과 스태프들을 만난 금오지(金鳥池) 수면에는 우리가 오를 금오산 연봉이 통째로 들어가 있다. 초록에도 여러 색감이 있다는 듯 호수에 풀어진 금오산은 말 그대로 한 폭의 수채화였다.

오늘 우리는 저 초록바다를 유영하듯 오를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신바람이 났으나 처음부터 가파른 등산로는 힘들다. 우리는 칼다봉 능선을 지나 정상

거쳐 효자봉까지 이어지는 제법 긴 코스를 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의 앞면인 대혜폭포 코스가 아닌, 뒷면의 긴 능선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방송 분량 때문이다. 길면 잘라낼 수 있으나 모자라면 늘릴 수가 없다. 서당개 3년에 풍월 읊듯, 방송 1년이 가까워지며 학습한 결과다.

고도를 올라자 금오산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낙동강 줄기가 구미시를 감싸고 유장하게 흐르고 있다. 칼다봉 능선은 천연의 암벽이 이어지는데, 그곳에 외침을 막기 위해 산성인 외성을 쌓았고 능선 안쪽으로는 내성을 쌓았다. 이 두 성을 합쳐 사람들은 '금오산성'이라고 부른다. 이 동네가 고향인 아은 길재가 고려 망국을 노래한 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곳 없다'는 절구처럼 허물어진 금오산성 외성을 따라 걷는다. 암릉을 걷다가 뒤돌아보며 국내 여성 고산거벽 등반의 선두주자인 이명희씨에게 묻는다.

“암벽만 오르다가 워킹산행을 하니 힘들죠?”

“힘드네요. 어제 링거를 맞았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본지 5월호에 표지모델을 겸해 특집으로 등장한 이명희씨를 배려해 대원들을 클라이머 위주로 부른 것은 아니다. 작가의 섭외에 따른 우연의 일치였는데, 팀원조합이 잘 맞는다. 클라이머를 교육하는 마운틴플러스의 오경자 센터장과 수강생들이었으니까.

힘준한 암릉코스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칼다봉 능선을 내려서 금오대피소가 있는 금오정에 도착했다. 성안으로 불리는 이곳은 물이 많아 환경부에서 고산습지를 복원해 놓았다. 외적과 대치하며 성안에서 농성하기 충분한 만큼 샘물은 팔팔, 기세가 좋다. 다리심을 한 후 다시 산길을 이어 정상부에 도달했다. 해발 976m 현월봉이 이산군의 최고봉. 조망은 훌륭하나 산 위에 꽃힌 철탑들이 흉물이다. 현월봉 바로 아래 약사암이 제비둥지처럼 보인다. 이곳

에서 찍은 일출영상이 TV방송 시작할 때마다 보인다는 말처럼 과연 훌륭한 조망터다. 약사암 일주문 현판의 글귀에는 '동국 제일문' 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지스님의 배려로 아찔한 구름다리 건너 독립된 바위에 있는 범종각에 들어섰다. 범종 표면에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보인다. 그렇구나, 이곳이 박 대통령 고향임을 새삼 깨닫는다. 다시 현월봉으로 되돌아와 효자봉까지 이어지는 암릉을 따라 길을 재촉한다. 허물어진 성벽은 이곳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활처럼 굽은 반대편 능선에서 바라보는 약사암은 과연 기치창검을 든 암봉들의 호위 속에서 명당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명금폭포가 있는 금오산 앞면은 자주 오르지만 우리처럼 금오산 뒷면을 보기는 어렵다. 뒤에서 보는 금오산은 절묘한 바위봉우리들이 이뤄져 산세가 변화무쌍하다. 다만 암릉은 힘들다. 하지만 등산의 가장 큰 매력은 힘든 가운데 얻는 가치다. 고통의 순간을 이긴 만큼 기쁨이 배가 되는 이치인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명희씨는 남자들에게도 버거운 고산 거벽을 오르고 있는가?

“2001년 히말라야 멀티4피크 원정의 유일한 여성대원으로 참가했어요. 혼보로(5,500m)에서 하산하는 도중 추락했습니다. 크레바스에 빠질 즈음 최석문 대원이 잡아 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피켈 피크에 최석문씨가 누워 있는 상처를 입었어요. 정말 큰일 날 만한 사고였습니다. 그때 최석문 대원이 '흉터가 생길 테니 책임져라'고 말했고 '좋아, 그럼 데리고 살게!'라고 말한 게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속으로 좋아했으니 이뤄진 결혼일 것이다. 어찌 됐던 남들은 이해 못할 프리포즈였겠다. 이씨는 알프스 거벽을 비롯해 남미 파타고니아 파이네 중앙봉도 오른, 한국에서는 드문 '아줌마 거벽등반가'다.

“워킹산행도 참 좋네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다니세요. 암장을 운영하는 오경자씨도 한 달에 한 번쯤 회원들과 함께 워킹산행을 다니는 것도 좋겠네요.”

그날 우리팀은 효자봉을 거쳐 헤드램프를 밝히고 하산했다. 다음 산행지인 비슬산 자락으로 옮긴 우리팀에게 대구시산악연맹 전무이사 차진철씨가 갓 탄 듯 싱싱한 딸기를 들고 찾아왔다.

“내면의 산을 찾고 싶습니다”

이튿날, 비슬산 산행은 금오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빠진 대신 대구시산악연맹 전무이사 차진철씨가 길라잡이로 나섰다. 비슬산 참꽃축제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생명을 깨워 낸 천지간 가득한 봄기운과 잦은 봄비가 해동을 거들어 등산로가 폭신했다. 그럼에도 걷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은 제비꽃 때문. 손톱보다 작은 색색의 앙증맞은 제비꽃이 행여 등산화에 밟힐까 지레 조심스럽다.

“진달래는 철쭉과 달리 먹을 수 있어 참꽃으로 불리죠. 지금 대견사 뒤 터에는 참꽃이 한창일 겁니다.”

차진철씨가 말하는 대견사까지도 쉽게 오르는 임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등산로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 산의 속살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관기봉을 갔다가 활처럼 산군을 휘돌아 조화봉을 거쳐 최고봉 1,083m 대견봉으로 가는 코스였다.

“차 전무, 해외원정 건은 잘 돼 가고 있나요?”

차진철씨는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고산등반가다. 1994년 초오유와 시사평마 중앙봉, 1996년 초모강리, 룡모강리 세계초등, 2000년 남극 빈슨매시프, 2003년 모교인 경일대 대장을 맡아 가서브롬 1·2봉을 등정하며 대구지역 고산등반을 견인하고 있다.

“제 첫 등반에서 시련을 준 매킨리를 이번 학교팀과 갑니다. 이제는 선배들에게 받

은 만큼 학교나 후배들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요. 월드컵에 우승하면 별을 하나 다는 브라질 축구팀 식으로, 우리 학교도 8,000m 고봉 하나 오를 때마다 산악회기에 별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별이 14개가 모두 그려질 수 있도록 후배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그는 경일대 산악부 OB로, 지금 대구시산악연맹 전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원정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인 만큼 사업도 그렇다. 유명 체인의 패스트푸드점을 차린 그는 사업을 확장하며 잘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산등반에서 오기를 부린다고 정상을 오르는 게 아니듯 늘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나이를 먹는지 내면의 산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가 말하는 내면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산행을 이어갔다. 대견사터는 암봉들에 둘러싸인 명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이곳에서 22년간이나 주석했을 것이다. 산 아래에서 이곳에 이르는 등산로 이름도 ‘일연옛길’ 이었다. 연속극 ‘추노’의 마지막 촬영지였다는 안내판과 함께 한창 복원공사 중인 대견사지 너럭바위 끝에 삼층석탑이 돛대인 양 우뚝하다.

지참했던 점심을 먹고 올라서자 대견사지 뒤편은 수십 만 평의 드넓은 분지였는데 참꽃으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 진



달래바다 끝에 정상이 있었다. 참꽃바다를 헤엄치듯 가는 하늘길, 행여 얼굴에 꽃물 들까 싶다.

“선배님하고 참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대산련이 추진한 7대륙 원정대의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5,140m)를 오른 후 귀국 길에 만났으니, 벌써 10년이 넘었나요?”

차 전무의 말처럼 그를 처음 만난 건 미국에서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펄펄 날던 차씨도 이젠 중년이 됐다. 눈앞의 현란한 참꽃이 금방 지듯이 시간은 그렇게 저 스스로 흐른다. 그러나 차씨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산 철학에는 그간 많은 내공이 쌓인 듯했다.

“이곳이 비슬산 정상입니다. 훈련할 때 대구 앞산에서 밤새 걸으면 이곳에 오후 3시경 도착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상은 비슬산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견봉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정상 부근은 역새밭이었다. 우리가 횡단한 분지처럼 참꽃은 많이 피지 않았다.

“참꽃의 개화는 산자락에서 시작하고 중턱을 지나 정상에 이릅니다. 정상에 꽃이 만개하면 저 아래 꽃바다는 이미 신기루처럼 없어지겠죠.”

해거름을 맞은 정상에서 띠처럼 보이는 낙동강을 조망하고 있을 때 차진철씨가 말했다. 그렇구나. 꽃도 고도에 따라 개화시간이 다르니까. 정상에 참꽃이 활짝 피면 우리가 헤쳐 온 중턱의 참꽃군락지는 없어질 거라는 간단한 사실.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을 툭 던진 차진철씨의 속뜻은 무엇일까. 중절모를 쓴 채 미소 띤 그의 옆얼굴에서 얼핏 깊은 산 고집이 보였다.

1 비슬산 정상부는 역새밭이었다.
2 비슬산 대견봉 앞에 선 대원들.
3 금오산 능선 중주 배경인 구미시에서 대원들.
4 금오산 정상 현월봉에서 스태프들.

